10.15686/fkl.2026..67.234

연결되는 마지네일리아를 꿈꾸며

-최정희소설전집편집위원회 엮음, 『최정희 소설 전집』 1-6, 푸른사상, 2026.

나보령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조교수

목차

1 최정희 소설 전집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2 장편소설 전집 간행 의도와 편집 방침
3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 현대사의 이면
4 젠더적 검열과 협상이 교차하는 마지네일리아

1 최정희 소설 전집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최정희(1906~1990)는 한국현대문학사에서 가장 오래 창작 활동을 한 여성 소설가 중 한 명이다. 1930년대부터 1980년까지 반세기에 걸쳐 소설을 쓴 그는, 또한 한국현대사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부대끼며 통과해온 작가이기도 하다. 식민지 시기의 카프 사건과 대일협력, 한국전쟁기의 부역 심사, 베트남전쟁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과 문학은 20세기 한국 문단을 휩쓸었던 역사적 사건들과 긴밀하게 연루된 채 전개되어 나갔다.

바로 그 때문에 최정희의 전집 간행은 누구도 선뜻 나서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작가에게 문학성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지사적 면모를 기대했던 과거 한국 학계에서 그는 전집을 내면서까지 재조명할 만한 존재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최정희와 나란히 해방 이후 원로로 대우받았던 여성작가면서, 친일이나 부역 등의 명예롭지 않은 이력과 거리를 둘 수 있었던 박화성(1904~1988), 최정희와 더불어 이른바 2세대 여성작가로 호명되곤 하는 강경애(1906~1943), 지하련(1912~불명), 김말봉(1901~1961)의 경우 이미 전집이 나왔거나, 지속적으로 간행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최정희 소설에 관한 연구는 꽤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다. 신여성, 모성, 친일, 계급갈등, 반공주의 등과 같은 굵직한 주제 아래 어떤 작가 못지않게 첨예한 논쟁적 해석과 평가가 제기되어왔다. 비록 전집은 없을지라도, 최정희 소설의 문제성만큼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찍부터 주목받고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옛 잡지나 신문의 디지털화가 상당히 진척된 오늘날이라지만, 직접 발품을 팔아 확인해야 하는 원본 자료가 여전히 많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서울의 몇몇 대학 도서관, 극소수의 장서가들만 소장하고 있을 뿐인 이 자료를 개인이 일일이 찾아 모으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로 인해 최정희처럼 전집

1 서정자 편, 『박화성 문학전집』, 푸른사상, 2004;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1999(수정증보판, 2002); 서정자 편, 『지하련 전집』, 푸른사상, 2004(개정증보판 2023); 진선영 편, 『김말봉 전집』, 소명출판, 2014~2021.

이 없는 작가의 경우 비교적 접근이 수월한, 후대에 간행된 선집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많았다. 이 경우 저본을 알기 어려울뿐더러 판본 간 차이라든지, 반복되는 오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점에서 최정희 소설 전집이 이제라도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다행한 일이다. 사실 최정희소설편집위원회의 일원인 나는 이 전집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서평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2024년부터 편집위원들과 함께 소설을 읽고 원본을 확인하고 교정 회의에 참석하며 전집이 나오기까지 약간의 손을 보탰던 덕에 간행 의도나 세부적인 편집 방침에 대해서라면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전부터 최정희 소설에 관심을 가졌던 독자이자 연구자로서 전집을 펴내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하거나 착안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공유해볼 수 있다. 독자는 이 같은 글의 한계를 고려하며 읽어주길 바란다.

2 장편소설 전집 간행 의도와 편집 방침

최정희가 남긴 소설은 약 100여 편에 달한다. 그중 전집에서 먼저 선보이게 된 것이 장편소설이다. 생전에 최정희는 주로 '삼맥'(「지맥」, 「인맥」, 「천맥」) 시리즈의 작가로 소개되었다. 초기 연구들도 여성의 심리를 다룬 단편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장편의 경우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던 몇 작품 외에는 상대적으로 덜 논의되었다. 작품을 찾아 읽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2]

그에 따라 전집 작업은 우선 장편부터 시작했다. 『녹색의 문』 연작, 『끝없는 낭만』, 『떼스마스크의 비극』, 『그와 그들의 연인』, 『인생 찬가』, 『너와 나와의 청춘』, 『인간사』, 『강물은 또 몇 천리』 총 8편이 해당한다. 단편으로 나뉘어 발표되었지만, 연작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탄금의 서』 연작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장편소설은 총 9편이 된다. 『탄금의 서』 연작은 근간이 예정되어 있다.

이때 저본은 연재본과 단행본이 둘 다 있을 경우 단행본을 택했다(『녹색의

2 전집에 앞서, 단행본으로 간행된 적이 없었던 장편 두 편을 책으로 출판한 것이 이병순 편, 『떼스마스크의 悲劇, 그와 그들의 戀人』, 푸른사상, 2018이다. 노고가 담긴 결과물을 전집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이병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

문』, 『끝없는 낭만』, 『인간사』). 단행본으로 출판된 적이 없던 경우에는 연재본을 참고했다(『떼스마스크의 비극』, 『그와 그들의 연인』, 『인생 찬가』, 『너와 나와의 청춘』, 『강물은 또 몇 천리』). 모든 책의 앞장에 수록된 일러두기 1번에는 저본의 구체적인 정보를 밝혀두었다.

저본을 옮기는 과정에서는 원문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띄어쓰기를 원문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물론, 문맥상 오식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도 본문은 그대로 둔 채 각주를 달아 오식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최소한의 가독성을 고려해 문장부호의 경우 부분적으로 손을 보았다. 예를 들어, 문장 끝에 마침표가 빠진 경우 전부 추가했다. 원문의 대화문에 사용된 낫표와 겹낫표는 문맥에 따라 작은따옴표와 큰따옴표로 바꾸었다. 외국어를 표기할 때 쓰인 낫표나, 강조의 의미로 홑화살표가 쓰인 경우 작은따옴표로 바꾸었다. 본문에서 책이나 영화, 음악 등 다른 작품명이 언급될 때는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낫표, 겹낫표, 홑화살표를 추가했다. 최정희 소설에서 많이 삽입되곤 하는 편지글의 경우 양쪽에 여백을 두어 일반 본문과 구분되도록 했다. 한자 병기는 원문대로 유지하되, 한자로 표기된 숫자의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었다. 이 정도의 수정은 원문의 가독성을 높이면서도 작가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본문에는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각주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했다. 예컨대, 사전을 찾지 않고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의 경우 각주에서 사전적 어의를 밝혔다('잦히다', '세나다' 등). 또한 사전에는 없지만, 최정희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의 경우 의미가 분명하게 추정되는 한에서는 각주를 달아 밝혔다('차부새', '뒷추배' 등).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속단하는 대신 그대로 두었다. 일본어를 음차한 단어는 일본어 또는 한자와 함께 의미를 밝혔다. 인용된 노래나 시 등의 경우 출처가 분명한 경우에는 각주에서 제시했고, 영화나 책 제목의 경우에도 원작이 분명할 경우 원제와 작가 등 간략한 정보를 덧붙여 관심이 있는 독자가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각 권 또는 각 작품의 말미에 책임 편집자가 작성한 해제를 실어 작품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요컨대, 최대한 원문에 충실하면서, 약간의 가독성과 정보를 더해 주로 연구자와 학문후속세대가 읽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다만, 전집이 나온

뒤 다시 검토해 보니 권마다 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도와 세부적인 각주 형식에 차이가 있고, 같은 단어에 대한 설명이 전집 내에서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가 눈에 띈다. 이 점은 추후 개정판에서 전반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

3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 현대사의 이면

대부분 1950년대 초반부터 60년대 중반에 쓰인 최정희의 장편소설들 가운데는 식민 통치, 해방, 분단, 정부수립, 한국전쟁을 거쳐 4.19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와 냉전이 교차하는 20세기 전반기 한국 현대사의 이면을 다시 쓰는 성격의 작품이 많다. 이와 관련해 그가 평생 역사소설을 쓰지 않은 작가라는 사실을 특기할 만하다. 작품 활동을 오래 한 작가, 특히 여성작가의 경우 말년에 흔히 대중적인 역사소설을 쓰곤 한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언제나 자신이 체험한 지난날과 동시대 현실이었다. "나는 이런 것을 보았다"라는 산문의 한 대목을 표지에 인용한 것은, 이처럼 그가 한국 현대사 속에서 직접 보고 겪은 민족, 계급, 젠더가 교차하는 폭넓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재조명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각각의 장편들은 시공간을 조금씩 공유하면서도, 다양한 인물을 통해 각기 다른 이야기를 펼쳐낸다. 식민지 시기 여학생들의 우정과 첫사랑, 그리고 해방 후의 엇갈린 운명을 다룬『녹색의 문』연작, 남성 중심의 연극계에서 재능 있는 여배우가 겪는 시련과 예술을 다룬『강물은 또 몇 천리』, 일제 말기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전향과 애정 갈등에서 시작되는『인간사』, 한국전쟁기 미군과 사랑에 빠진 여성의 불안과 비극을 다룬『끝없는 낭만』, 한반도 남단의 다대포 바닷가에서 청춘들이 맞는 한국전쟁의 풍경을 그린『그와 그들의 연인』, 전후 사회의 혼란스러운 세태와 애정 윤리를 다룬『떼스마스크의 비극』,『인생 찬가』,『너와 나와의 청춘』같은 식으로 말이다. 작품의 길이를 고려해 6권으로 분권한 이 소설들을 독자는 창작 시기에 따라 1권부터 순서대로 읽어도 좋고, 소설에서 다루는 시공간별로 짝지어 읽어도 좋다.

최정희의 눈으로 포착한 이 방대한 세계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남성작가의 소설에서라면 비중 있게 취급되지 않았을 여성인물, 또는 가정을 건사하고 아이를 돌보는 여성화된 남성인물(『인간사』의

강문오)에 초점화하면서, 겉으로는 도덕적, 이념적, 예술적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성인물의 허위성과 무능, 위선과 폭력을 신랄하게 폭로한다는 것이다. 최정희 소설에서 이 남성들은 여성의 몸을 점령하고, 돌봄을 착취하며, 얼마든지 여성과 아이를 내팽개치면서도 상대의 민족적 '배신'과 '타락'을 준열하게 처벌하려 드는 존재다. 해방 이전이든 이후든, 우익이든 좌익이든, 정치운동이든 예술운동이든 어떤 부류의 남성도 그와 같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정희 소설의 기저에는 이 남성들에 대한 실로 깊은 원한의 정서가 흐르고 있다.

최정희의 글쓰기에서 여성 젠더는 이처럼 한국 현대사의 공적 기억과 기록을 내파하는 힘을 지니면서도, 때로 친일 같은 현실에서의 떳떳하지 못한 정치적 행보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는 데 동원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번 전집 간행을 계기로 그의 장편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거나, 논의가 소략했던 작품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최정희 문학과 젠더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길 바란다. 참고로 편집위원회에서도 전집 발간과 연계된 연구 성과로 작년 말부터 논문을 발표하였고,[3] 올 초에 개최한 학술대회의 결과물을 학술지 특집으로 엮었다.[4] 관심 있는 독자는 이 논문들을 함께 읽어봐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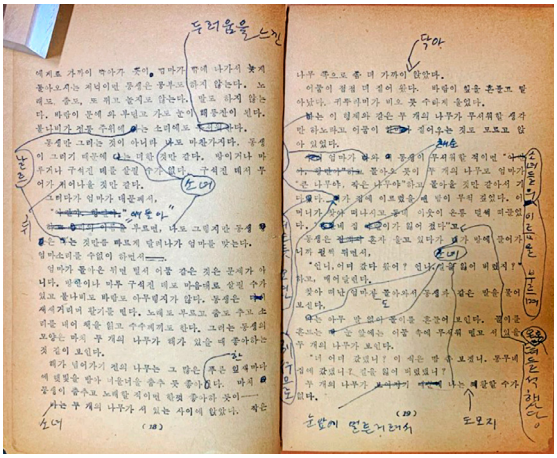
4 젠더적 검열과 협상이 교차하는 마지네일리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끝없는 낭만』의 책임 편집을 맡으며, 새로운 개작본을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 소설은 처음 잡지에 연재된 판본과 이듬해 출판된 단행본 사이에 제목을 포함해 군데군데 차이가 나 일찍이 개작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3 나보령, 「나비부인의 편지: 냉전 오리엔탈리즘과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 『사이』 제39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5.11; 유승환, 「속물화되는 사회와 젠더의 재구성: 최정희의 『인생찬가』와 『너와 나와의 청춘』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101호, 한국문학회, 2025.12.

4 구보학보 42집(2026년 4월 30일 발행) 특집 "지금, 여기, 최정희 읽기" 수록 논문은 다음과 같다. 한경희, 「'친일파'라는 사회적 비난에 대한 항변-최정희 장편소설 『녹색의 문』(1959)과 부역의 젠더 정치」; 변하연, 「'아프레 걸' 서사로서의 1950년대 중후반 최정희 장편소설 연구」; 손유경, 「미친 남자들과 연루된 여자: 『강물은 또 몇 천리』에 나타난 최정희의 해방 전후」

그런데 전집 편집 원칙에 따라 단행본을 저본 삼아 작업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인쇄일이 다른 두 종류의 판본(1958년 11월 10일 인쇄본, 19일 인쇄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둘 사이에는 단순한 오식 교정 외에도 결말에 결정적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일종의 젠더적 검열[5]과 협상의 흔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었다. 전집에서는 후자를 작가의 최종 수정을 거친 판본으로 판단했고, 판본들 간의 구체적인 개작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집의 해제와 논문을 통해 상세히 밝혔다.[6]



최정희 기증본『장다리꽃 필 때』에 남아있는
작가의 자필 흔적

몇 년 전 현담문고(구 아단문고)가 소장한 아동문학집『장다리꽃 필 때』(대양출판사, 1954.3)를 참고해 논문을 쓸 당시 나는 최정희의 기증본이자 손때 묻은 수택본 곳곳에서 작가가 직접 교정을 보고 가필한 흔적과 마주친 적이 있다.[7] 이번에『끝없는 낭만』의 개작을 검토하면서, 이 소설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쳐 수정되었고, 그 결과물이 재인쇄로까지 이어졌을 것이라고 상상해볼 수 있었다. 비슷한 흔적은 최정희 기증본『떼스마스크의 비극』신문스크랩 모음과『인간사』단행본에서도 확인되며,[8] 본격적으로 조사할 경우 더 많은 텍스트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5 최정희 소설의 젠더적 검열을 다룬 논의로는 이소영,「식민지 검열에서 법과 문학의 상호 형성: 식민지 말기 최정희 소설에서의 중층적 검열을 중심으로」,『법철학연구』제15권 2호, 한국법철학회, 2012.

6 나보령, 앞의 글, 436-446쪽 참조.

7 책의 이미지 파일을 제공해주신 현담문고의 박천홍 학예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8 「'별을 헤는 소녀'에서 '찬란한 대낮'까지: 최정희의 생애」,『문자와 상상』1호, 아단문고, 2014, 13-14쪽. http://archive.hyundammungo.org/ebook/1453689707.2752/1510267798.2875/mobile/index.html#p=14 (검색일: 2026.4.22.)

최정희가 원고 곳곳에 남긴 이 자필 흔적들은 넓은 의미에서 책의 여백에 남기는 메모, 주석, 표식 등을 포괄하는 '마지네일리아(marginalia)'로 접근해볼 수 있다. 여성이 책의 가장자리 여백에 무언가를 쓰는 행위는, 김지승의 표현을 빌리면, "이름과 긴 역사를 가진 방식"이며, 그로부터 발견되는 여성주의적 반응과 개입, 분열, 정동은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9] 이와 관련해 김지승이 소개하는 메리 애스텔이나 버지니아 울프의 사례도 흥미롭지만, 나는 한국 여성작가의 마지네일리아를 연구할 때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존재가 최정희라고 생각한다. 『끝없는 낭만』의 여러 판본들에서 나타나는 여성주의적 개작과 분열, 젠더적 검열과 협상의 흔적은, 위에서 확인한 다른 텍스트들처럼 필시 수정과 생산이 오가는 마지네일리아를 남겼을 터다. 나아가, 『삼천리』 기자이자, 『주부생활』 주간, 특히 50년대 중반 이후로는 신춘문예를 비롯한 각종 문학제도의 심사자로서 그는 어떤 여성작가보다 왕성하게 자신과 타인의 글을 읽고 쓰며 마지네일리아를 남겼을지 모른다. 비록 이번 장편 전집에서는 이 흔적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거나 반영하지 못했지만, 최정희 문학 연구에서 이 주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나마 공유해둔다. 추후 자료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싶다.

8편의 장편소설의 뒤를 이어, 조만간 『탄금의 서』 연작과 단편소설 전집이 출간될 예정이다. 일제 말기에 일본어로 쓴 소설과 아동문학도 차차 작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AI가 무엇이든 순식간에 생성하는 시대에 옛 작가의 오래된 원문을 찾아 읽고, 손수 활자로 입력하고, 여러 번씩 대조하고, 각주를 다는 과정은 무척 수고스러우면서도, 그 역시 긴 역사를 갖고 이어져 오는, 여전히 유의미한 문학 연구 방식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감동을 준다. 이 전집을 통해 최정희 소설 연구의 기반이 탄탄해지고, 그동안 덜 주목받은 장편이나 말년의 단편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들의 가치가 재발견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전집 곳곳에도 독자들이 저마다의 마지네일리아—설사 책에 대한 질정일지라도—를 남기며 최정희와 우리들의 풍요로운 대화가 이어져 나가기를 바란다.

9 김지승, 『마지네일리아의 거주자』, 마티, 2025, 11-14쪽.